

#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달 올렸다’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생태계 복원·남해안 신성장 동력 확보 ‘탄력’  
전남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역사적 과업...지역경제·환경보존 달성”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해온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달을 올렸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수십 년간 훼손되었던 여자만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남해안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 본격화됐다.

여자만은 여수, 순천, 고흥을 걸쳐 광활하게 펼쳐진 국내 주요 갯벌 중 하나다. 순천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특히 청정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과거 대규모 간척사업과 개발 압력으로 인해 갯벌의 면적과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에 예타 대상에 선정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적 처방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자만 국가생태공원 사업은 여자만 일대의 생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해양 생태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 규모는 여자만 일원 41만2210㎡에 총사업비 169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타 대상 선정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여자만은, 빠르면 10년 내 눈부신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자만 국가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 복원 작업에 집중된다.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고 염생식물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방문객들은 과거의 오염된 모습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갯벌을 체험하게 된다. 탐방로는 최소한의 데크 구조물로 설치돼 생물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여자만은 ‘해양 생태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

다. 국내의 해양 생태 연구진을 위한 연구 시설이 들어서고,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여수와 순천, 고흥을 잇는 생태 탐방 루트가 완성돼 탐방선을 이용해 여자만을 유람하게 된다.

여자만 사업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소득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간척으로 생업 기반을 잃었던 주민들은 생태 해설사, 갯벌 체험 운영자, 친환경 수산물 양식업 등으로 직종을 전환하며 새로운 경제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예타 대상 선정을 기점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만은 이제 산업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 랜드마크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 지역상생 휴양시설로”

전남개발공사, 협약 맺고 숙박료 할인 이벤트

전남개발공사는 4일 “공사가 운영 중인 한옥호텔 오동재(여수)와 영산재(영암)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청(유관기관 포함, 직원 약 2만명),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근로자 약 80만명)에게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를 직원 휴양 시설로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과 근로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역의 관광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 일반 숙박객도 한옥호텔이 위치한 지역 내

음식점·상점·관광지 등 지역 업소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숙박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운영 중에 있다.

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기관의 근로자들이 전남의 맛과 정취를 체험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전남도, AI·첨단 미래기술 접목 ‘건설 혁신’ 논의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개최

전남도가 ‘2025년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첨단 미래기술을 접목한 건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31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는 최동호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학회와 협회 관계자, 도·시군 공무원, 청년 대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연찬회는 건설수주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전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 노력과 AI 해상풍력 등 미래전략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AI와 디지털트윈,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건설 안전과 유지·관리와 혁신을 이끄는 방안을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형 토목기술 발전방향과 건설산업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등 청년 기술인과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양한 기조발제도 이어졌다. 최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은 매년 발생하는 대형 도심지 땅꺼짐 사고와 그 예방과 대책을 제시했으며, 권태



혁 카이스트 교수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및 토석류 방어기술을 발표했다. 또 건설안전 AI로봇(김형관 연세대 교수), AI와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건설 인프라 유지관리(장우식 조선대 교수) 등 발표도 이어졌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도 특강에 나서 전남도의 주요 정책 성과와 미래 비전을 설명하며 “전남도는 올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핵심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전남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

다”며 “최근 확정된 솔라시도 오픈AI 데이터센터, 국가AI컴퓨팅센터, 진도·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과 핵융합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유치된다면 지역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업황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도 의용소방대 모였다 전남도는 4일 담양군 추성경기장에서 제42회 전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남소방본부와 전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관하고 담양군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파트너로 활동하는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과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2개 시군 대표로 35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출전해 4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 도,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 문화유산 지정

조선 후기 불교 공예품

전남도는 31일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불교 공예품인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사진>)을 지정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은 사찰에서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 연대는 1803년경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기 드문 원형 철제 수정이라는 조형적 특징을 지녀, 널리 사용되는 장방형 석조(石槽)와 대비되는 가치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조선 후기 불교 공예사의 기준작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사찰



생활문화의 구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한편, 전남도는 ‘고흥 무

열사 소장 고문서’를 지정문화유산으로 예고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진무성(1566~1638)의 일가가 5세대에 걸쳐 작성한 문서로 조선후기 무반 가문의 활동과 향촌사회를 이해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동절기 ‘출동’

내년 2월까지 취약계층 지원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30일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생활

안전순찰대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1만 5000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도내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참여한다.

복지기동대는 독거 노인과 청·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 난방시설 수리, 장호단열 개선, 방한용품 지원, 생활안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미끄럼방지 매트 등으

로 구성된 화재예방 안전구르미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복지기동대가 생활밀착 복지 모델로 자리잡으면서 2019년부터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는 27만 6000여 가구를 지원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겨울철 한파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기동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나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061-120),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위기 알림업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01-9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